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9호 HYUNBULNEWS.COM 2025년 7월 16일(음력 6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7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대통령과 종교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李정부-불교계 '국민 행복' 협치 다짐

李대통령, 7월 9일 취임 후 첫 종교지도자 오찬 회동
李 "포용적 세상을"…진우 스님 "국민 평안 위해 노력"
첫 예방 온 김민석 총리, 불교에 문화콘텐츠 협업 제안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을 본격화하며 종교계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특히 불교계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조언을 경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장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서 걱정"이라며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종교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그런 합리적인,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환영사를 했다.

참석자 대표로 인사한 진우 스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보살피고 또 사랑과 자비로써 잘 보듬어서 좀 더 국민들을 평안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싶다"며 "지난 7개월 동안 국난에 가까운 시기를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성적으로 잘 갈무리를 해 준 것 같아 대단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나라의 안정된 토대를 마련해 온 만큼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를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놓는 큰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희망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인들도 대통령과 함께 국가, 국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평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월 10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우 스님을 예방, 불교의 역할 두 가지를 요청했다. 첫 번째는 문화콘텐츠 협업으로 김 총리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핵심에는 불교문화의 숨결이 있다"면서 "사찰과 그 속에 담긴 문화콘텐츠는 우리 문화의 보고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호국불교의 가치를 살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복원 계승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불교계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템플스테이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최근 서울 진관사에서 사찰음식을 경험했다는 김 총리는 그동안 관심 가져온 발달장애인들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길 소망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1년에 8000명 정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 중이다. 더 발전시켜 살피겠다"고 약속하며 "불교역사가 1700년이 됐고, 정신적·문화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종교적인 형평성 문제로 오히려 규제받는 역차별 현상이 있다. 종교 차원이 아닌 우리 문화로 후손들에게 전승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8일에는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진우 스님이 김 위원장에게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는 드물다. 균형을 이루게 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며 "지방 발전의 토대가 될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덕담하자 김 위원장은 "지역 모두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화답했다.

日반출 고려사경·조선불화 광복 80주년 앞두고 환수

국가유산청 · 국외재단 7월 8일
시왕도 등 2점 언론 최초 공개
"불교미술사 연구에 중요 자료"

광복 80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2점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 김정희, 이하 국외재단)과 함께 7월 8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사경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조선 불화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 공개했다.

이날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공개하게 돼 뜻깊다"며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앞으로도 현지 협력망을 강화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고려 1334년에 제작된 불교 사경(寫經)으로, 감색 종이에 금니(금가루를 아교풀에 개어 만든 안료)로 필사했다. 13장의 종이를 이어 붙여 10m가 넘는 이 사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인 〈대방광불화엄경〉의 주본(중국 당나라때 실차난타가 한역한 80권본)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이다. 화엄경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기록돼 있다.

해당 고려 사경은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고, 올해 4월 협상을 거쳐 국내로 들여왔다.

배영일 마곡사 성보박물관장은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은 사경의 구성요소인 표지화·발원문·변상도·경문 등을 모두 갖췄다. 무엇보다 변상도는 능숙한 선묘(선으로 묘사함)에서 당시 전문 사경승의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시왕도'는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시왕을 그린 그림이다. 현전하는 조선 전기 완질 시왕도 2점 중 하나로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후 국가유산청과 협력으로 낙찰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가 이뤄졌다.

각 폭의 화기에는 제작 시기는 없으나, 스님과 시주자들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어 민간 발원으로 조성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박은경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시왕도'는 고려후기 불화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15세기 초 작품으로 추정된다"며 "한국 불교회화사 및 동아시아 시왕도 연구에 중요한 사례"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국가유산청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7월 8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사경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조선 불화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 공개했다.

불교로 읽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① 5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부터~
인도 보드가야
인도 마하보디 대탑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담불라 석굴 사원
스리랑카 시기리야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미륵도량
설두산+상해 4박5일
▶일 정 : 인천-상해-보타낙가산-설두산-상해-인천
▶동참금 : 문의
중국 4대불산
-구화산+항주 4박5일
-오대산+북경 4박5일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